

FINAL

실전 모의고사 학습 가이드

본 자료는 기출에 대한 학습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했을 때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최근 5개년 기출 지문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출제 포인트들이 70%이상 기억난다.**
2. **22학년도~20학년도 기출과 19학년도~17학년도 기출의 결이 어떻게 다른지 안다.**
3. 6, 9평 및 실전모의고사에서 70% 이내의 확률로 **2등급 이상의 성적**이 나온다.
4. 21학년도 수능과 22학년도 기출의 **경향적 차이**를 인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셨을 시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모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땠는가? : 기출과의 유사성 및 이질감

문학은 평가원이랑 비슷함

내용 일치 / <보기>와 선지 내 정합성

주목할 지점들 : 기출과 유사한가?

독서 지문

내용과 형식 / 서술상의 특징 → 유사기출 / 가장 유사하진 않아도 된다

22학년도기출 / 이전기출

미시 / 거시

이런 범주에 신경 매몰되는 것 금지

guideline일 뿐!

잘한 점과 못 한 점 위주

분석은 웬만하면 과목마다 한 지문씩만 선별

시간 구성

가채점표

상상 파이널 5차

PLANS BEFORE TEST

- * 도시적 미항대강 보기
- * 연속된 인과 : 이해오단 파악만
- * 정오의 역할 : 옆에 간단히 필기
- * "적절" vs "적절X" 미리 체크

- * 지문 풀기 : 상황만위로 → 둘째 E편
- * 사실관계 파악

PERFORMANCES

화작	독서론	예술	과학	경제	검토, 마킹	현대 소설	고전 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11m	3m	8~9m	9m	12m	1m~2m	1m	8m	4m	9m

전체적인 총평

비문학은 또 분할장지문에서 경제가 나왔고, 나머지 지문은 무난하게 예술, 과학이 나왔다. 9평 처럼 지문 난이도에 비해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느낌, 하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다.

문학은 연계 체감이 안된 지문들... 느낌은 딱 6, 9와 비슷하다. 고전시가가 엄청 긴게 나왔다(9평처럼) 문학에서 외적준거의 중요성을 보여준 실모

[화작 / 언매] 피드백

첫번째 지문은 강연+계획 이 나왔다. 자료활용 문제와 달리 이런 유형은 범주, 특이점만 잘 잡고 넘어가면 되서 2분내에 잘 풀었다. 2번 문제 정답 선지는 아주 정밀한 서술범주 교체를 파악해야 한다.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연습해야됨

토의-건의문 유형, 이것도 토론, 평가 지문보다 훨씬 쉽다.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로 무난하게 나눔

보고서 - 작문, 어려운 유형, 자료해석과 문제점을 동시에 잡아가야된다. 파본검사할 때 42번 같은 범주 판단 문제가 있다는걸 미리 보고, 이 문제 선지부터 읽고 키워드 잡고 넘어갔는데 훨씬 빨리 풀렸다. 44번은 정답선지가 너무 애매하다. 때문에 정답률도 50%대, "문제 의식"의 정확한 뜻 찾아보기

독서 피드백

제재 독서론 분류 단지문 지문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제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목 및 주제 고전의 중요성, 방법	구조와 흐름 문단이 나누어진게 이상했으므로 비슷한 내용의 연속 → 차이점 찾기 (보라)
--	-------------------------------	---

PERFORMANCE [1~3] [2] [3m] [3 | 0 / 0 / 0]

문제가 될만한 #2 <보기> 항상 나오는 다른 학자와의 비교
 주로 보기에 나와있지만 <보기> 에 안나온 차이점 가지고 선지 읽어냄
 → 너무 미시적인 워딩, 문장에 집중보라
방주 판단!!

제재 인문, 예술 분류 증지문 지문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제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목 및 주제 토픽이론의 적용과 방법	구조와 흐름 F → A , 이항대립 두관식 서술 서론: 첫문단
--	--------------------------------	---

PERFORMANCE [10~13] [3] [8~9m] [4 | 0 / 0 / 0]

이항대립을 다룰때, 능동적으로 비교점 취할 중요성
 [이-아] '토픽' 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이해는 안됐지만 잘 정리해 넣어야
비시정보도 이항대립 해보기
 문제는 매우 쉬웠음 #12는 자주 나오는 방향성만
 #13 비판문제 (정답이 허무)

제재 생명과학, 기술 분류 불친절, 증지문 지문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제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목 및 주제 DNA 변형과 재생을 통한 길이, 복장성 판단	구조와 흐름 F → A 두관식 서술 P ↔ F 재진술 이항대립
--	---	---

PERFORMANCE [14~17] [4] [10m] [4 | | / | / 0]

변형 → 재생 넘어가며 대립, 재진술 파악을 못함 <보기> 문제 보류 → 감토 2번 다시 : 조금더 빨리 미루기
 "일정 길이" 같은 키워드 놓침

제재 경제 분류 불친절, 보라 증지문 지문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문제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목 및 주제 시장 차이에 따른 관세 부과와 효과 특정장단에 의한 무역 정책의 결정 과정	구조와 흐름 이항대립 F → A P → S 재진술
---	---	--

PERFORMANCE [4~9] [5] [12m] [6 | 0 / 0.2 / 0.2]

(가) 에서 정보의 역할을 늘림 C → E 가 연속되어 나올때 방주, 역할 무조건!!
 [02] - [03]

#7: 이해를 못해 보듯 하지만 9평처럼 방주만 #8 연속된 인과에서 키워드

문학 피드백

갈래 현대소설 [거위의 환] 분류 단일 / 외적구조 변이 지문 ○●●○○ 문제 ○●●○○	주제 및 줄거리 여성의 삶 1인칭주인공, 회상	보기와와의 정합성 결론 건동 (현상) → 자유 (기대) 주변과정, 관습(여동) → 정형의 틀음 계속 반복: 허실자복X 장편 등장: 당사자간, 서구문화, 민족중흥
--	--	--

PERFORMANCE [18 ~ 21] [1] [6 ~ 7m] [4 | 0 / 0 / 0]

지문 읽기 연습: 사. 공간들 기록상아
 #19 방제영의 늑대 #20 지문읽기: 상황변화, 비주 판단

갈래 고전시가, 수필 분류 융합 / 외적구조 융합 지문 ○●●●○ 문제 ○●●●○	주제 및 줄거리 (가) 현실 상황묘사 비모를 등장장르 (나) 인식 예시 인식	보기와와의 정합성 독립 공간 중심 (가) 담론의 비문, 현실 묘사, 비모 묘사 (나) 기 정화, 귀환, 자신의 서정시화 계속 반복: 장편 등장: 짧!
--	---	---

PERFORMANCE [22-27] [4] [am] [6 | 1 / 1 / 0]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갈래 고전소설 [국산전] 분류 단일 / 외적구조 변이 지문 ○●●○○ 문제 ○●●○○	주제 및 줄거리 술을 통한 정지 풍자 근전 역사 (가) 술 역사 장편 단편 그후 역사	보기와와의 정합성 술에 안착되어 → 풍자 의중, 간신배 역사 ↓ 문리 → 술 → 비전 장편 ↓ 주권나움, 변화가만 문제 ↓ 임태포 변화 지경 → 비전
--	--	---

PERFORMANCE [28-31] [4] [8m] [4 | 0 / 0 / 0]

#31 보기와 지문 대응 연습
 아직 지문 읽기 연습 부족

갈래 과대서 분류 연계, 비연계 / 외적구조 변이 지문 ○●●○○ 문제 ○●○○○	주제 및 줄거리 (가) 공동체, 자연의 맺어, 모듬 화가래춤 (나) 산수유 나무 ↔ 사랑들	보기와와의 정합성 (가) 전체적 흐름 공명 (나) 인식X 의미화 속성 발견 → 인식, 정량, 무법 ↓ 비판, 포괄, 인도하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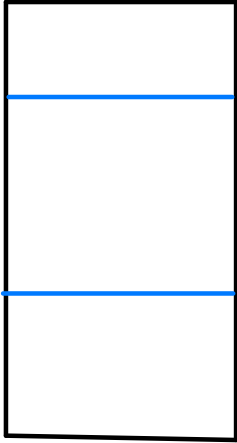
PERFORMANCE [32-34] [3] [4m] [3 | 0 / 0 / 0]

#34 보기와 정합성

< 지문 >

< 문제 >

(가) 거창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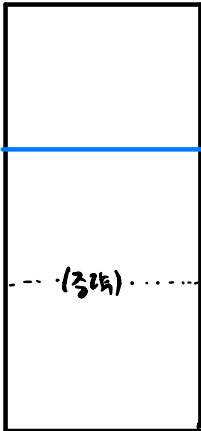


상황, 비교

[가] 구체적인 상황

다른 마흔과 비교
한탄

(나) 운금류기



세상사랑에 대한 연사

(나) 연사랑 관련

연사

#22

만저품, 당연한 선지 케코

#23 [A]와 <보기> 비교

둘다 고등받는 백성

어떻게 보면 임금(내)에 대한 부정 제기만
주체가 백성이고, 어정도는 허용가능

#24 사실관계 파악

㉠ ~~소박한 외관~~

다른 선지들은 그 지문뒤로 범주, 당연한 선지

#27 의견지와 의정정당판단 feat. 사실관계

㉠ 임금이 어진 정치 → 폐단 막음

보기와 정답 X

지문에선 임금이 어진 정치로 → 폐단

(가)는 외적 증거에 따른 해석만

(나)는 지문정확히 읽고 화자의 **주장** 파악

< 유사 기출 >

21수능수필, 10.06 판공록
출제 Point 등

↳ 화자의 인식, 태도

* 미시정보까지 사색관계 출제 가능

1906 서경별곡

<보>와 비교, "카이", 의미연결

1511 <보> (음주판판으로)

독서 피드백

< 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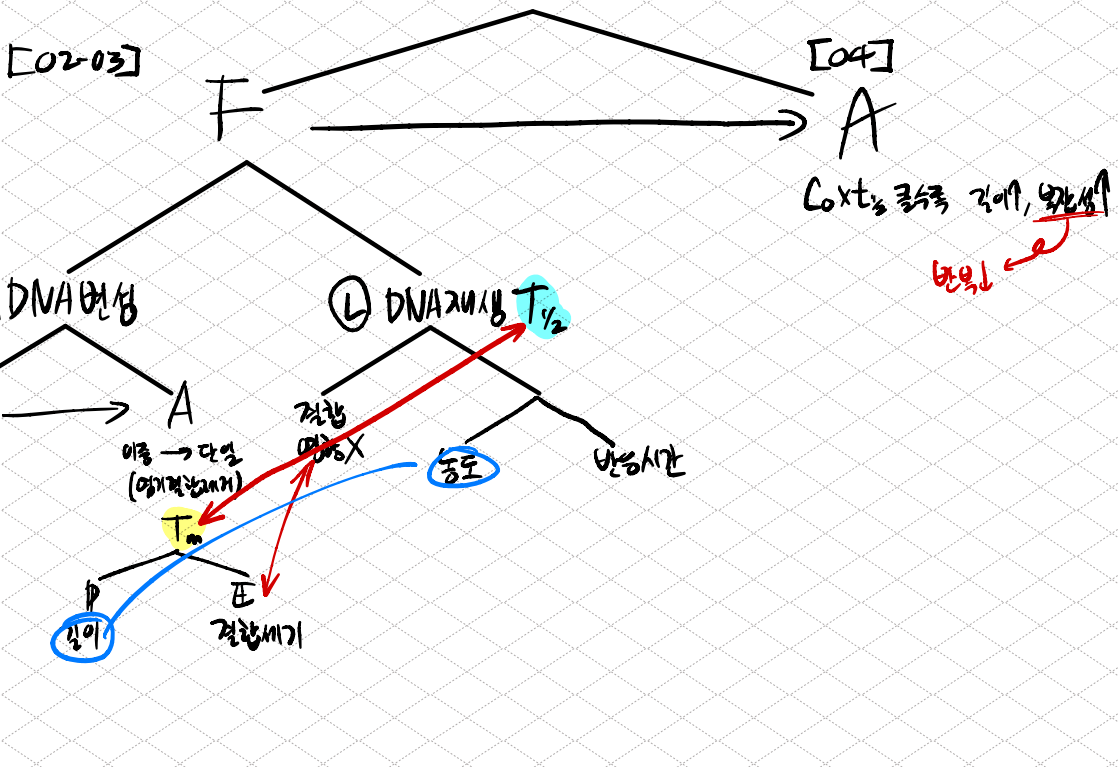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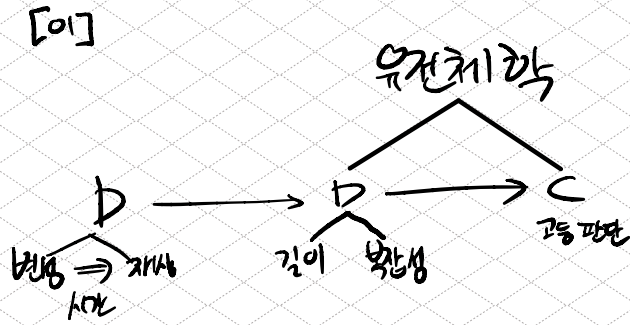


< 문제 >



< 유사 기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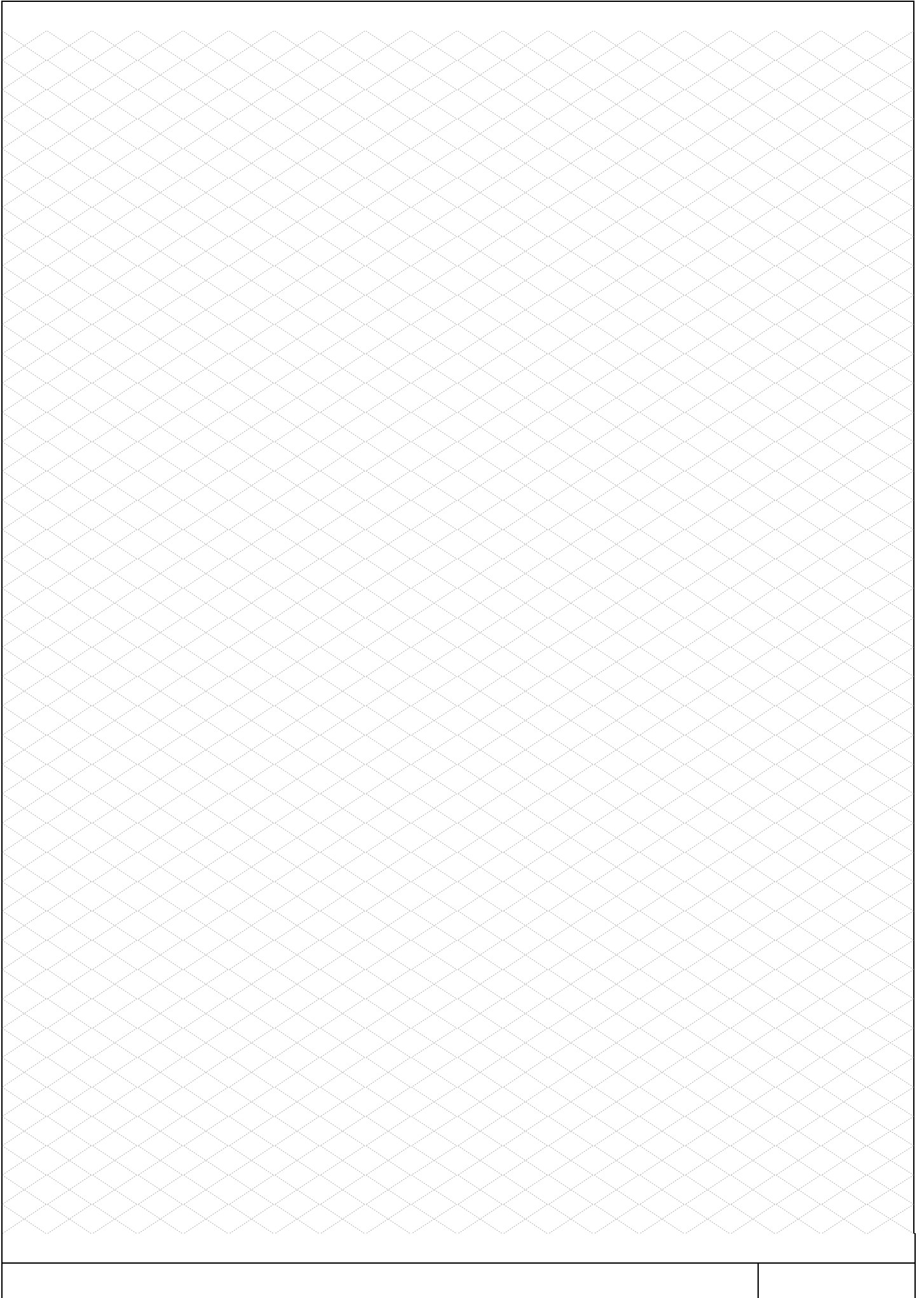


#17 변형 문제 like STM

- ㉠ 변형성 -> #15 장명 선제와 유사
- ㉡ 비교지점 (클수록 위해 시슬린 지점)

STM 처럼 변형 문제 파악 중요 + 재진술

PCR 처럼 반복한 이래 복가
각부분



22.09 평가원 모의고사 faq

● 9평이 쉬워서 수능이 어려워지면 어찌죠?

9평이 쉬웠는데 수능이 왜 어려워지죠? 또, 9평이 쉬웠는데 수능이 또 쉬워질 이유도 있을까요? 9평과 수능은 독립시행입니다. 물론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시험에서의 학생 성적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조정하겠죠.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에 대한 해석은 다 사후적인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란 거죠. 적중에 신경쓰지 마세요. 함부로 예측하려 하지도 마시고요. 출제진들은 감금된 시설에서 수십 번의 회의를 할 거고 수백 번의 토론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감히 공부하는 중간 중간 그럴 거다 하고 예측할 만한 문제가 절대 아니예요. 이걸 마치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물리학과 지망생이 예측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 기출은 잘 푸는데 낯선 지문을 보면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우린 변하는 시험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해요.

매번 시험은 무조건 낯섭니다. 올해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그간의 기출과 유사했다고 느꼈나요? 여러분이 풀었던 사설모의고사와는요? 전혀,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자료를 만들고 해설을 하는 제 입장에서선, 다 똑같아요. 쓰이는 도구와 태도가 모두, 모두 똑같아요. 어떤 면에선 9평 때 아예 적응을 해버렸어요. 해야할 것만 가르친 것 뿐인데이.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건 전혀 아닙니다. 웬지 아세요?

낯설다는 감정은 왜 느낄까요?

왜 시험을 보고 난 뒤 감정은 항상 '아... 아쉽다. 할 수 있었는데...'로 귀결될까요?

쓰이는 도구는 다 이미 기출 지문들에서 소개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나 태도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죠. 똑같은 원리에서 시작해도 구체적인 지문 상황에 적용되는 바가 다르니까요. 요즘 책을 쓰면서 가르친 태도와 팁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 20가지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원은 항상 이들의 조합을 새롭게 출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태도 다섯 개가 있다고 칩시다.

a, b, c, d, e

어떤 지문에선 a가 지문을 장악하고 나머지 네 개가 미시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쓰입니다. 또 어떤 지문에선 c와 d가 그럴 수도 있죠. 이 차이가 여러분에게 낯설다는 감정을 주는 겁니다.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잉여 정보의 지양

- 재진술

- 이항대립

따라서 우린, 써야 할 태도와 도구들을 기출 지문들을 통해 모두 잘 확보해 놓고 이를 낯선 지문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기출 지문은 잘 푼다면, 전자는 충족한 겁니다. 이제 이것 명시적으로 다시 정리한 뒤 낯선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합시다. 실모든, N제든 간에요.

여기서 또 질문이 있겠죠? 태도와 도구 따위를 도대체 얼마나, 몇 개나 확보해야 하는가? 물론 제가 적는다면 상황에 따라 태도를 구체화 시켜서 수십 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책의 목차를 '학습목표'로 설정하는데, 그 목차의 양이 꽤 돼요. 그렇다고 이것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건 미친 짓이죠. 또, 그래서 안 돼요. 최대한 기본적인 태도 몇 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전 칼럼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래의 세 가지 태도에만 집중했습니다.

호기심 : 미시적으로 이해, 거시적으로 스키마

이항대립 :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대비되는가?

문제해결 : 왜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흐름에 기여하는가를 잘 분석해봤어요.

이건 수험생 때 강조했던 거고, 지금 보면 좀 수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래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네요.

이항대립 : 미시적 정보처리와 거시적 구조 인지

인여정보의 지양 : 모든 정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재진술의 인지 : 정보량을 줄이고 이해도를 높이는 가장 뛰어난 도구

등급대에 상관 없이 이런 공부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다섯 개 이내의 태도에 집중해주세요. (95%의 학생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섯 개 태도를 짹 짹 채워서 쓸 겁니다. 오히려 안 좋습니다. 감당 가능한 양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태도가 축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태도 세 가지를 수많은 지문들에 적용시키면서 나름의 방식대로 구체화시키세요.

한 번에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문 구조도 학습지

모든 학생에게 도움되는 학습지는 아닙니다.

그간 공부를 하시며 지문의 내용과 흐름, 논리관계를 가시화 하는 것이 체화가 되신 분, 즉 구조도를 그리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두 종류의 구조도 학습지를 드릴 테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삼각형 및 대각선 베이스의 구조도를 그리시는 분이 많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오르비 공개

독서 지문 구조도 분석지 type 1

	독서 지문 구조도 분석지 type 1	
